

## 美國大學에서 非美國人 學位取得 해마다 증가, 美國의 競爭力에 영향?

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1989년에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非美國人의 수는 8,195명으로 전체 학위 취득자('89)의 26%이며, 이 중 6,590명은 임시 입국자(Temporary Visa)이다. 1960년 후 약 20년 동안 박사 학위 취득자의 수는 약 7배로 늘어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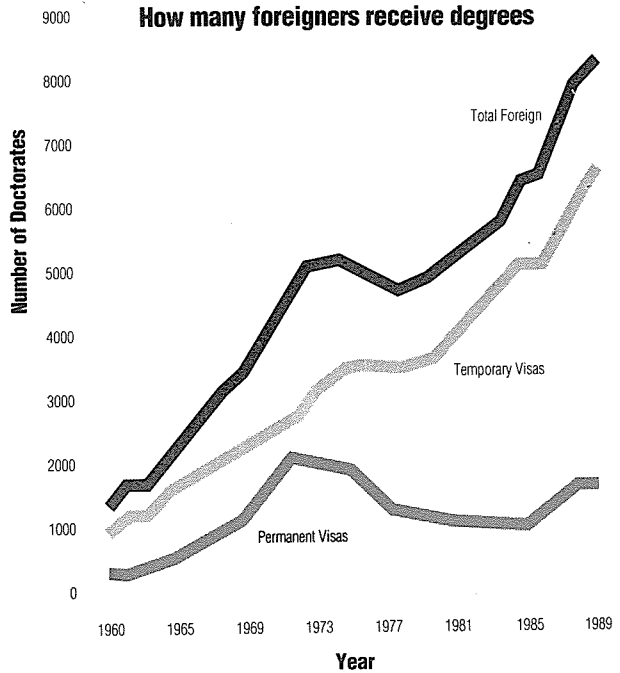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미국 여론의 관심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높여 주게 될 外國의 엘리트들을 길러냄으로써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학위 취득자의 국가별 통계를 보면 상위 25개 나라들 중에서 14개 나라가 아시아국가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 수에 있어서 대만 다음인 2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을 최근에 특히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1983년에 15명에 불과하던 것이 86년에 205명, '89년에는 641명으로 4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永住入國者의 比率이 각각 7.9%와 4.8%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임시 입국자의 경우, 학위를 받고 나서도 미국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Where they come from

Country	Total U.S. Ph.D.s	Perm. Visas %	Temp. Visas %
1. Taiwan, Republic of China	962	16.8	83.2
2. South Korea	926	7.9	92.1
3. India	676	19.4	80.6
4. People's Republic of China	641	4.8	95.2
5. Canada	358	27.1	72.9
6. Iran	215	48.8	51.2
7. England	155	41.9	58.1
8. Japan	144	15.3	84.7
9. Greece	141	19.1	80.9
10. Mexico	134	17.2	82.8
11. West Germany	134	29.1	70.9
12. Thailand	132	9.8	90.2
13. Arab Republic of Egypt	127	11.0	89.0
14. Brazil	121	12.4	87.6
15. Hong Kong	116	81.9	89.9
16. Nigeria	113	34.5	65.5
17. Israel	93	25.8	74.2
18. Saudi Arabia	88	11.4	88.6
19. Turkey	88	19.3	80.7
20. Malaysia	77	5.2	94.8
21. Australia	77	19.5	80.5
22. Italy	75	28.0	72.0
23. Republic of Indonesia	72	9.7	90.3
24. Jordan	71	22.5	77.5
25. Pakistan	70	8.6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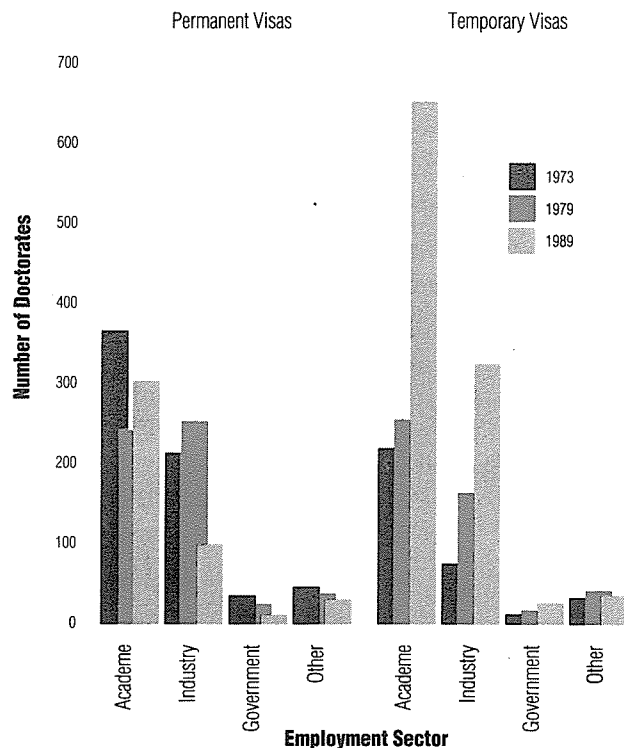
What they study

Field	Total Ph.D.s in Field	Percent Earned by Non-U.S. Citizens	
		Perm. Visas	Temp. Visas
Total All Fields	34,319	5.1	21.0
Physical Sciences	5,460	5.3	30.5
Physics/Astronomy	1,278	5.3	36.7
Chemistry	1,971	4.6	25.1
Earth, Atmos., and Marine	738	4.4	17.8
Mathematics	861	4.5	44.5
Computer Sciences	612	9.9	31.2
Engineering	4,536	8.7	46.5
Life Sciences*	6,343	4.4	19.3
Biological Sciences	4,106	4.6	15.5
Health Sciences	985	2.8	15.2
Agricultural Sciences	1,252	4.8	35.6
Social Sciences*	5,955	4.2	15.5
Political Sci./Int'l Relations	524	9.3	25.2
Economics	898	6.8	40.8
Humanities	3,558	6.4	10.5
Education	6,265	2.8	7.6
Professional/Other*	2,202	6.3	19.8
Business and Management	1,071	6.9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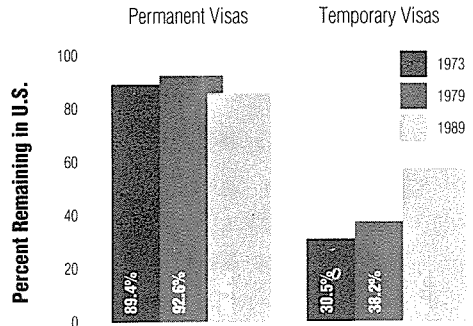
Note: Totals in each field include U.S. citizens and recipients with unknown citizenship status. Percentages are based on the number of doctorates with known citizenship status.

\* Totals include other fields not shown.

Where they work



How many stay



‘어떤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했느냐’는 통계를 보면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全分野에 걸친 平均은 26%인데, 外國人の 비율이 월등히 많은 분야는 엔지니어링(55.2%), 수학(49%), 물리 및 천문학(42%), 컴퓨터 공학(41.1%) 등으로서 사회 과학(19.7%), 교육학(10.4%) 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학위를 받고 나서는 학계(60%)와 산업계(30%)에의 취업을 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위의 통계는 미국의 National Research Council(NRC)이 작성한 것으로 미국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미정부의 이민 정책이나 大學院 학생의 정부 보조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력이 경제력이라는 인식과 함께 미국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 때, 미국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불공평하게 비칠 정도로 강력하게 마련하고 있으며, 많은 장벽과 보호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인력 교육에 대한 또 하나의 장벽(Barrier)이 마련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崔熙云  
(기술 예측 연구실)